



등 / *Wisteria floribunda* (Willd.) DC.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등속
과국명	콩과
과명	Leguminosae

<p>일반특징</p>	<p>요약설명 : 콩과 낙엽 활엽 만경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정원과 공원에 심고 있으며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의 일부에서 자란다. 일본에도 분포한다.</p> <p>분포지역 : ▶일본에도 분포한다.▶전국적으로 정원과 공원에 심고 있으며 경남과 전남 일부에 자생한다.</p> <p>형태 : 낙엽활엽만경()목</p> <p>크기 : 길이 10m이상으로 자란다.</p> <p>꽃색 : 자주색</p> <p>개화기 : 5월</p> <p>잎은 어긋나기하고 홀수깃모양겹잎이다. 작은 잎은 13~19개이고 달걀 같은 타원 모양 또는 달걀 같은 긴 타원모양이며 점첨두 원저이다. 양면에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며 작은 잎자루에도 털이 있다. 잎 위쪽은 진한 녹색이고 광택이 있다. 어린 잎에는 비단같이 부드러운 털이 있으나 자란 후 없어진다. 꽃은 5월에 잎과 같이 피고, 많은 꽃이 그 해에 자란 가지 끝에 총상꽃차례로 늘어지거나 잎 달린 자리에 난다. 꽃대축에는 하얀 털이 뽀뽀하게 나 있다. 꽃은 연한 자주색이며 꽃자루에는 잔털이 있다. 꽃받침조각에도 털이 있다. 기꽃잎은 둥글고 미요두며 연한 자주색이지만 밑부분이 황록색이다. 또한 기꽃잎 아래쪽에는 귀 모양의 돌기가 2개 있다. 날개꽃잎 및 용골꽃잎은 짙은 자주색이고 용골꽃잎은 끝 쪽이 하나로 합쳐진다.</p> <p>열매는 협과고 넓적하다. 또한 짧은 털이 촘촘히 나 있고 밑으로 갈수록 좁아진다. 씨앗은 둥글고 넓적하다. 갈자색이며 광택이 있다. 열매는 9월에 익지만 1월까지 그대로 달려 있다.</p> <p>가지는 덩굴이 되어 길게 뻗어 10m이상으로 자란다. 나무 또는 다른 물체를 감거나 기어 올라간다. 줄기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, 처음에는 갈색 털이 촘촘히 나 있지만 점점 없어지면서 회백색이 된다. 어린 가지는 얇은 막으로 덮여 있다.</p> <p>땅속줄기는 잘 뻗으며, 옮겨 심어도 새 뿌리가 쉽게 내려 정착하기 쉽다. 성장이 빠르고, 식물이 썩으면서 만들어지는 유기물이 많은 기름진 계곡이나 산기슭에서 잘 자란다. 추위에 강하고 건조하거나 척박한 곳일지라도 생장이 양호하다. 또한, 바닷가나 대기오염이 있는 곳에서도 잘 견딘다. 씨앗을 뿌리거나 꺾꽂이 또는 휘묻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번식시킨다. 천연기념물 제89호, 제176호, 제254호로 지정되었다. 제89호는 경상북도 경주시 건곡면에, 제176호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에, 제254호는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다.</p>
-------------	---